

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
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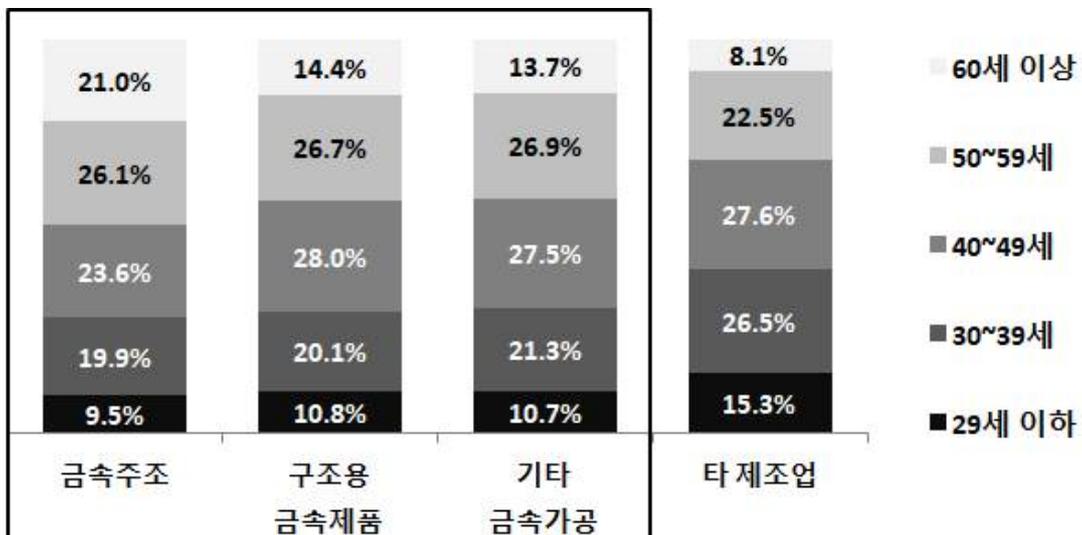
2022. 8. 5

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
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

I. 현황 및 문제점

-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특히 금속가공제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과 같이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생산인력 부족은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.
- 실제로 금속주조, 구조용 금속제품, 기타금속가공 등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, 타 제조업에 비해 50·60대 장년층의 비중이 높음.

금속가공 제조업의 연령별 분포(2022년 6월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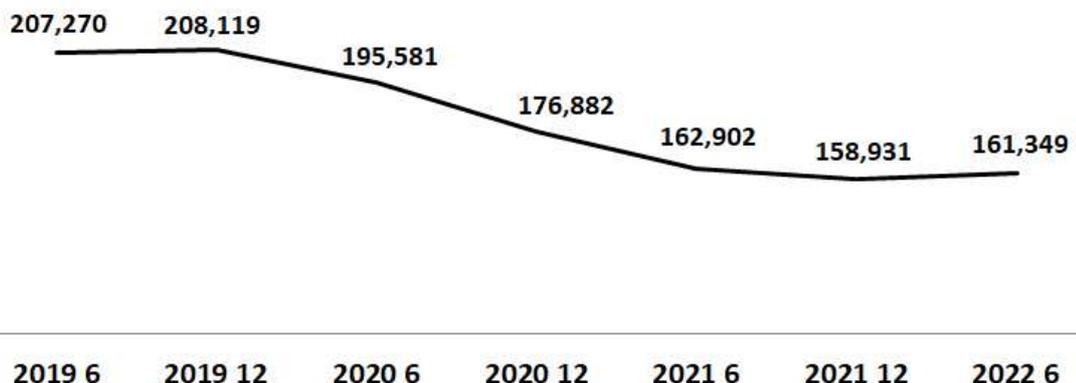


※ 자료 : 고용정보원

- 특히 퇴직연령이 초과한 60대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 이는 뿌리산업의 현장근로자 수급 애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.
 ※ 전국 금속주조업의 60대 이상 근로자 수 비중 '17.6 : 14.7% → '22.6 : 21.0%
- 이는 청년인력의 근무기피가 특히 심한 뿌리산업 제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.
- 이러한 상황에서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생산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,
-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, 고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음.

전국 제조업(체류자격 E9-01) 등록외국인 수

(단위 : 명)



※ 자료 :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

- 더욱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차질의 체감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임.
- 실제로 국내 제조업에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(E9-01)를 발급받은 등록외국인 수는 2019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,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빠르게 감소했음.
-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과 외국인근로자의 사증 발급 및 신속입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봉쇄조치 기간 동안 누적된 외국인근로자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음.
- 특히 산업전반의 기초재료를 제공하는 뿌리산업 제조업의 생산 능력 감소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,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원청기업의 완성품 및 모듈생산의 차질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-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 수급이 가장 힘든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금속가공업의 경우 확보한 수주량을 생산할 수 없어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.

II. 건의

-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속과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고용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류기간을 대폭적으로 추가 연장하거나,
기간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절차를 국내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재고용 절차를 간소화
- 외국인근로자의 수급 사정이 어려운 금속가공업 등 소규모 뿌리 산업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

2022년 8월 5일

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 자 천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천
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춘
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상석
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
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병대
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명진
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손영준
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계출
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환중